

부활 제 6 주일

기도서 301 면

제 1 독서 : 사도 10, 25-26.
34-35, 44-48
제 2 독서 : 요 한 1서 4, 7-10
복 음 : 요 한 15, 9-17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사 목 국
인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사랑과 희생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범 선 배 신부

오늘의 제1독서인 사도행전 10장과 증세송인 시편 97장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한 면을 보게 됩니다. 즉 하느님의 사랑은 어느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범위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2독서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요한 1서 3, 8)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들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신 대목(요한 13장~17장)의 한 장면이 주어 집니다. 이미 형제적 사랑이 “새 계명”(요한 13, 34)이며 당신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요한 13, 35) 해주시는 표시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또 한번 그 형제적 사랑이 “바로 나의 계명”(요한 15, 12)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제 하느님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최상의 형태를 말씀하십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3). 바로 이점에서 우리의 사랑도 제1독서에서 보는 하느님의 사랑처럼 우리들만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문자대로 실천한 사람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나찌」수용소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아사(餓死) 감방에 갇힌 막시밀리안 클베 신부입니다. 그는 죽은지 30년이 지난 1971년에 시복(諡福)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0년전도 아니며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닌 지금의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를 알고 있습니다. 즉 최 기식 신부의 양심에 따른 행위가 온전히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몰리려 하지만, 그 사건을 보는 우리의 눈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 기식 신부 행위의 근거는 바로 자신을 넘어서는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라는 점까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2-13)

(대전 신학대학 교수)



이 시대의 문제점들 ③

의령사태를 따지는 국회에서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 「이번 사건같은 문제를 깊이 따지려 하면 언필칭 복과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소리가 나오지만, 나는 이런 문제를 깊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보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한국적인 정치상황의 맥을 제대로 짚은, 매우 의미가 깊고 값진 한 마디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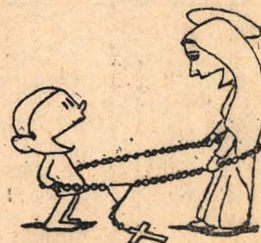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가운데 이런 게 있다. 여럿이 모이면 음식 주문이 웃진다. 의견을 묻는 사람에게 알아서 시키라고 한다. 어쩌다가 각양각색의 주문이 쏟아지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 하나로 통일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이런걸 어떤 사람은 한국적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어쨌든 그 원인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온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아랫 사람은 윗 어른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쳐 왔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도 가르쳐 왔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것이 어른들은 아랫 사람의 의견 듣기를 마치 도전인양 생각해서 꺼려해 왔다. 거기다가 상명하복(上命下服)이 철저히 지켜지는 계급사회에서는 더 더욱 그래 왔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큰 병폐임에 틀림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드리지 못하는 웅졸함을 수없이 보여 주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양심적인 소리를 안보(安保)를 내세워 억박지르기도 했다. 윗 사람의 복안이 서면 아랫 사람의 건설적인 의견도 갈아뭇개버리니, 관료들은 눈치만 보는 무사안일로 일관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었다.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될 역사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내 의견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손을 배우자.

숲 정 이 산책



성모님과 친해질려면...



우 리 의 입 장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각 교구 사제단이 발표한 성명 등의 요지」

우리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 현실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총화와 민주발전에 역행하고 있음을 절감하며 이에 극심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정부당국과 언론은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의 핵심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거두절미하고,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진상의 조사, 발표보다는 천주교 신부의 범인 은닉문제를 확대선전, 발표함으로써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나아가 의도적으로 천주교회를 음해하고 있다.

국민과 교회를 분열, 이간시키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적면하여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진실을 밝히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바이다.

一. 1982년 4월 1일 우리 교회는 교회를 찾아온 문부식과 김 은숙을 본인들의 자수 결심에 따라 당국에 자수를 주선하였고, 4월 2일에는 우리 교회에 은신중이던 김현장을 본인의 뜻에 따라 자수케 하였다. 우리 교회는 본인들의 뜻을 당국에 전달, 반영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교회의 충정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건 자체를 확대함으로써 천주교회를 음해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언론도 이에 동조하였다.

천 가톨릭 교회는 마치 좌경, 용공, 불온의 온상처럼 원주교구 교육원은 범죄의 소굴인양 선전되고 있으며, 최 기식 신부를 방화의 주모자이며 좌경의식화 교육의 주관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이미 공인하고, 교회에서 보장하는 공식단체인 가톨릭 농민회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모략과 선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 일반이 당국과 언론의 이러한 음해와 이간에 결코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교의적인 음해에 대해 정부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一. 당국이 뒤늦게 사건을 최 기식 신부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려 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사건의 경과나 성격에 비추어, 또한 사제의 근본과 신원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교회와 사제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최 기식 신부의 행동이 결코 불온적 행위가 아니며 사제로서 최선의 길이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가톨릭 교회의 사제는 누구든지 방화를 교사할 수도 없고 좌경의식화 교육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공산주의자가 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또한 교회를 찾아와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도, 밀고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 사제의 신원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사람을 떠난 사제의 삶과 사제적 수행은 있을 수 없다. 사제에게 밀고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인간적인 신뢰와 종교적 사랑까지도 파탄케 하는 사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제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법적으로 간주된 이 사건을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시대의 아픔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스스로 양심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리와 산천을 방황해야 하는 현실이 아니라면 아마도 최 기식 신부의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책임은 진정 누가 질 것인지 그 누군가가 대답해야 할 것이다.

一. 우리 교회는 광주사태와 김 대중(토마스) 사건 등 지난날 이 민족의 불행한 사태들을 사랑과 화해의 정신으로 청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당국은 이번의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사건에 연루된 근원적 문제인 광주사태, 현 정부의 당위성, 도덕성 등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며,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一.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왜곡 보도된 원주교구 교육원과 가톨릭 농민회가 결코 국민들을 좌경으로 이끌어가는 좌경 내지 반국가적인 기구나 단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인간교육과 신앙교육을 수행하는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단체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아직도 오 원춘 사건이나 광주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한 언론이 또다시 기득권에 편승하여 무책임한 보도를 서슴없이 자행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언론의 비리를 개탄할 수 없다.

一. 우리는 이 사건이 그 원인에서부터 공정하게 규명되어 해결될 때까지 당국의 사건 처리 과정에 예의 주시할 것이며, 변호인 선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결의와 노력에 권력의 개입과 탄압, 그리고 방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겸허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一. 교형자매 여러분은 사건의 진행과 추이를 지켜보아 주기 바란다. 모든 신자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서 하느님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최 기식 신부는 물론, 하느님의 자녀인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는 순교와 박해로 점철된 2백년 교회사에 토포히 의거하면서 일치, 단결된 행동과 노력으로 흔들리지 않고 의연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경향잡지 5월호에서〉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음 중앙동

제일아케이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관동)

남 베로니카

□개업

“교우님들의 사업에 「節稅」로서 봉사코저 합니다

세무사 이환영 사무소

〈가톨릭센터 221·222호실〉

전화 ③ 6604

“교우님들에게는 언제나 저 세무에 대하여 무료 상담하여 드립니다

세무사 이환영(아오스당)

(SS) FASHION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신사복·영국모드

세계적인 코트의 명문

버 킹 겐 런 던 포 그

(주) 유 율리안나

간이복·성인용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아동용·주니어

심화약국 옆



위 크 엔 드

전화 ③ 4451



□ 지성인 예비자 환영식 및 베텔, 베소라 성서교실 개강

지난주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는 120여명의 지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식이 환영식 겸 성대히 거행되어 지역 선교활동에 큰 의의를 불러 일으켰다.

김 재덕 주교님, 교구장 직무대행 신부님을 비롯하여 평협회장님과 다수의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환영식에 이어 조촐한 축하연도 베풀어졌다.

등록된 예비신자들은 5개반으로 편성되어 앞으로 6개월동안 지도를 받게 된다.

한편 5월 10일에는 70여명이 등록한 베텔 성서 교실의 개강식이 있었고 11일에는 1백여명이 등록한 베소라 성서 교실의 개강식이 가톨릭 센터에서 있었다. 지도는 범 석규 신부님과 김 정원 신부님께서 각각 맡게 되었다.

□ 제2회 로사리오회 체육대회

지난해 1월 발족한 도내 신자 내부공무원 모임인 로사리오회 체육대회가 지난 5월9일 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히 베풀어졌다.

직장 내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신앙의 자세를 특별히 다짐한 이번 모임에는 82년 들어 새로 영세한 신입 회원들이 23명이나 참석하여 발전하는 로사리오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호프함도 있었다.

□ M. E(Marriage Encounter) 소개

—당신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십니까?

M.E 주말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M.E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정이나 세미나와는 다릅니다. M.E는 부부가 대화에 열중하면서 함께 2박3일을 보내는 가운데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의사소통을 갖게 하여 참된 부부애와 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찾아주는 모임입니다. 이 운동은 1958년 스페인에서 가브리엘 캄보 신부님과 몇몇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되어 10년후 미국에서 정착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한국에는 1976년 주한 미국인들을 위해 실시되었던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각 교구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이 M.E가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 전주 교구에 들어오게 될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교구 제 1차 M.E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M.E 소개의 밤

제 1차 M.E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부부를 위해 아래와 같이 「M.E 소개의 밤」을 갖게 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가톨릭 센터 교육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하셔야 됩니다.

일 시 : 5월 27일(목) 오후 8시

장 소 : 전주 가톨릭 센터

※ 강사는 서울에서 오 재호씨 부부가 특별히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가톨릭 센터 교육부 제공—

—신비의 무공해 식품 공급소—

○ 각종 간(肝)질환 : 간암 · 간종양 ○ 영양 공급이 필요
○ 신부 · 정력감퇴 · 허약체질 · 결핵 저혈압 · 당뇨 · 신경
질환 ○ 신경성 위장병 · 심장 허약 · 만성피로 · 식욕감퇴
○ 열증(炎症)이 있는 신부 · 부인병 · 위궤양 · 류마티스
신경통 · 치질 등(수술전후 · 영양공급)을원하시는 분

만수인삼집

주 김 정 희 (요안나)

전 화 ⑧ 8778, 농 장 ⑧ 6460

※ 농장 직영공급

토종분양, 양식안내, 직장인의 부업 알선

□ 개업

훈례 · 회갑 · 선물 · 장식

고전 동양 매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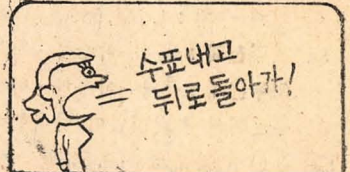
매듭작품, 재료판매 및 수장, 벽걸이, 발걸이, 장걸이, 목걸이, 노리개...

도 교육청 정문 바로 앞

매듭 전문 연구실

임 영 수 (테레사)

요심이 458 김병오



(축)

은 경

안 북 진(요셉) 신부

1982. 5. 26 (수)

사제서품 25주년을 맞이하시는 신부님께 더 큰 주님의 은총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둔율동 천주교회 신자일동

짚 세 기

보세품 · 등산화 · 특수화 테니스화

□ 전동 대전 신용 협동 조합 우측

심 재 오 (분도)



1. 축! 은경: 둔율동 안복전(요셉)신부님 5월 26일(수) 2시-축하미사, 3시-축하식, 4시-축하연
2. 한봉섭 신부님 출국: 5월 11일 교포 사목차 미국으로 출국
3. 제1지구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임: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김제본당에서
4. 김영일·이대권·서석기 신부님 15일 출국: 일본에서 개최하는 오파아 주리아제 참석차 2주간 일정으로 15일 출국했음.

(여산)

전화 16번 주임 신부 박화신
사도 회장 이삼영

1. 예비자 교리: 주일 공식 미사후 있습니다
 2. 중고생 교리: 토요일 오후 3시
 3. 연중 감사헌금: 미납하신분들 속히 봉헌합시다
 4. 숲정이 섬지 제대헌금: 본당 신부님(10만원)
현재 누계: 1,156,500원
 5. 금주전례: 독서-이삼영·김종화, 봉헌-두여리공소
차주전례: 독서-이우영·박노현, 봉헌-황화정공소
 6. 주일미사에 빠짐없이 참석할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58,545원

(화산)

전화 당성 71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최갑철

1. 성모회·예비자 교리: 공식 미사후
 2. 성인 예비자 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30분
 3. 의무적으로 보아야 할 봄 판공성사
성신강림 대축일 전까지 봄판공 성사 안본 분들은
필히 보시기바람
- 지난주 봉헌금: 66,765원

(용안)

전화 160번 주임 신부 현유복
사도 회장 김종현(활열) 전화 00065번 주임신부 서석구
사도회장 김종의

1. 영화상영: 오늘밤 8시부터 (성인 및 학생), 제목-성 프란치스코 오늘 오후 4시부터(학생); 제목-다미안 신부
※ 예비신자 및 외교인과 함께 동반해서 참여하세요
 2. 성모의 밤 행사: 내일밤 8시
 3. 예수승천 야외미사: 다음주 동지산에서 개최
 4. 농번기가 되었습니다: 주일 미사에는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5. 금주봉헌: 고등학생회, 차주봉헌-천사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83,760원

(활동)

전화 30번 주임 신부 강덕창
496번 사도 회장 노진래

1. 꾸리아회: 공식 미사후
 2. 승천축일 야외미사: 일시-5월 23일 오전 10시
장소-함라면 신동리 수채(연못가) 다채로운 행사와 어린이 미술대회도 있으니 많이 참석하여 주님의 승천을 지켜보며 즐겁시다
※ 점심 식사는 각자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3. 성모의 밤 행사: 5월 29일 오후 8시 각 신심단체와 많은 신자 참석하여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4. 연중 봉헌금: 정성으로 봉헌하여 교회살림 도움시다
 5. 전례: 금주독서-박신근·문영호, 봉헌-본당 7구역 차주독서-정경옥·이충호, 봉헌-사도회
- 지난주 봉헌금: 66,940원

원주사태 (최기식 신부 구속 사건)에 대한

천주교회의 입장



절대 찬동 지지한다 「짝짝」

원주사태와 천주교회의 입장

정부 당국에 묻는다.

<사건의 경위와 실상>

최근의 정부 발표와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정부 당국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진상의 조사와 발표보다는 천주교 신부의 범인 은닉문제를 확대 선전, 발표함으로써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나아가 의도적으로 천주교회를 음해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우리는 예수 수난의 성주간에도 또 하나의 수난을 겪으면서도 은연자중하는 가운데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아왔다.

국민과 교회를 분열, 이간시키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우리의 진실을 밝히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그동안의 경위를 스스로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 당국이 우리의 겸허한 물음에 답함으로써 그동안의 경위와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1. 1982년 4월 1일, 우리 교회는 교회를 찾아온 문부식과 김은숙양을 본인들의 자수 결심과 그 뜻에 따라 당국에 자수를 주선하였다. 4월 2일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은신중이던 김현장씨를 본인의 뜻에 따라 당국에 자수케 하였다. 우리 교회는 본인들의 뜻을 당국에 전달, 반영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였고, 이런 우리들의 노력은 정부의 고위당국자로 부터 감사의 뜻을 인편으로 전달 받았다.

김현장씨를 문부식 및 김은숙양과 함께 일괄 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본인이 부산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였고, 또 당시까지 부산사건과 관련하여 김현장씨가 혐의 또는 수배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교회로써 김현장씨를 부산사태와 관련 자수케 하는 것은 오히려 김현장씨의 부산사태 관련을 본의아니게 뒷받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경위는 당국에 충분히 전달되었다. 이것이 사건의 경위다. (우리는 경위에 관계된 기관 또는 인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 교회는 그들의 자수 주선후, 비록 본인들의 뜻이라고는 하나, 교회를 찾아온 사람을 수사당국에 인계해야 되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므

로 우리는 결코 우리들의 자수 주선이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문제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교회의 충정과 아픔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수 주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쫓점을 맞추어 사건 자체를 확대함으로써 천주교회를 음해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언론도 그에 동조하였다.

우리는 묻는다. 부산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노력한 일련의 방식 이외에 우리가 취해야 할 별도의 어떠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정부 당국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대화와 협조 노력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놓고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밝혀달라.

2. 우리는 그들의 자수를 주선함에 있어 특정한 수사기관을 선택하지 않았다. 수사기관들 위에 있는 정부 고위당국에 그들의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자수와 신변 인계과정에 있어 특정 수사기관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우리의 뜻과 무관했다. 오히려 우리는 자수 주선과 그 처리에 있어 특정 수사기관의 소외와 그에 따른 오해와 불식을 사전에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 특히 우리의 자수 주선 노력과 관련하여 수사당국의 그누구도 문책당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외된 특정 수사기관은 고의적으로 천주교회를 음해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같은 음해의 인상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원주교구 교육원을 마치고 범죄의 소굴인양 제시되는가 하면, 천주교 신부는 범인은익의 원흉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으며, 심지어 4년전(78년) 추수감사절 농민대회 때 사용된 피켓을 범죄의 상황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기관이 이미 공인하고 교회가 보장하는 공식단체인 가톨릭 농민회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모략과 선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 일반이 결코 당국과 언론의 이러한 음해와 이간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러한 고의적인 음해에 대해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3. 정부 당국은 뒤늦게 최기식 신부의 개인의 범법행위로 문제를 국한시키려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동안의 사건의 경과나 성격에 비추어 결코 최기식 신부 개인의 문제로 볼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교회를 철저하게 모략, 음해한 후 개인의 문제로 귀착시키려는 당국의 의도는 너무나도 그 속이 드러나 보이는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제의 근본과 신원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사제 전체의 문제

일 수밖에 없다.

사랑을 떠나 사제의 삶과 사제직의 수행은 있을 수 없다. 사제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의 형제로서 봉사하는 사람인 것이다. 사제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도, 밀교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 사제다.

우리 하느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최기식 신부가 처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기식 신부를 비롯하여, 우리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제, 성직자로 하여금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호소요, 바램이요, 간곡한 부탁이다.

이 사회에 양심범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고, 정치적 반대라는 이유로 정치보복과 투옥의 위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 주기 바란다. 과연 그럴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정부 당국은 대답하기 바란다.

4. 광주사태와 김대중씨(토마스)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판단과 견해는 일단 보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 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화합과 사랑의 이름으로 청산치유 되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입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진 바 있다.

2년전 5월 저 처참한 광주사태의 기억과 책임이 다시 일깨워지는 것을 결코 우리는 원치 아니한다.

김현장씨가 광주사태 관련자로서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최기식 신부에게 말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광주사태는 잊혀져야 할 사태로써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우리는 김현장씨가 우리 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영세한 교우였다는 사실을 지적코자 한다. 우리는 광주사태, 금강회 사건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우리는 또한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관해 알지 못한다.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한 줄 보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사제가 무엇을 근거로, 또 누구의 말을 믿고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에 대해 돌을 던지거나 밀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5.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의도적인 확대와 그리고 원주교회에 대한 고의적인 음해와, 교회와 국민사이의 이간 노력이 어떤 의미와 이익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묻고자 한다.

우리는 최기식 신부의 석방을 구걸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양식의 회복을 갈망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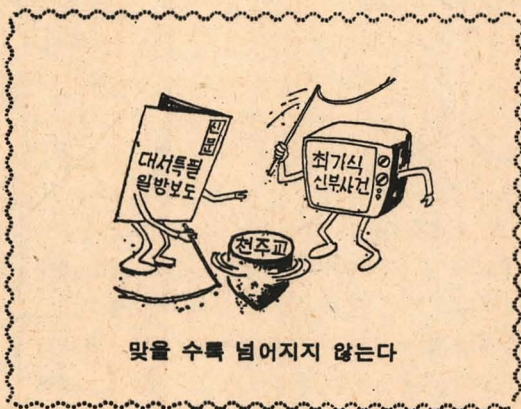
그리고 결코 우리가 은신을 자처하고 나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기대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최신부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산사태의 실체와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부산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변호인 선임등 우리들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결의와 노력에 권력의 개입과 탄압, 그리고 방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겸허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순교와 박해로 점철된 가톨릭 전래 2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튼튼한 단결을 다짐하면서 정부 당국의 답변을 기대하는 바이다.

1982년 4월 1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주 교 회 의 담 화 문

최기식 신부 구속에 대한 주교회의 담화문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최근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교형자매 여러분에게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 당국이나 언론이 여론을 오도하여 교회를 비방하더라도, 교형자매 여러분께서는 순교로 점철된 200년 교회사에 뿌리박은 우리의 신앙을 의연히 지켜가시리라 믿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기도와 일치로써 곳곳하게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모든 언론을 동원한 사건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가톨릭 교회를 불온 집단의 온상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하면서, 마치 최기식 신부를 방화의 배후인물 또는 좌경의식화 교육의 주관자로 부각시켰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언론자유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과장 보도의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들 사이에 불신감과 위화감을 조장해온 일련의 보도 사태를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사제직의 근본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제는 그가 누구이든 방화를 교사할 수 없으며, 좌경의식화 교육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돌을 던지거나 밀고할 수도 없는 것이 사제의 신원입니다. 이번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교회를 찾아와 그 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본인들의 뜻에 따라 당국에 자수를 주선해준 최기식 신부의 행위는 사제로서 최선의 길이었음을 우리 교회는 확인하는 바입니다. 또한 광주사태로 말미암아 쫓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준 사제들의 양심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입니다. 공익이나 제3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확실히 되지 않는다고 양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앙인은 도움을 간청하는 범법혐의자를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광주사태는 그 진상과 원인 또는 책임의 소재가 공정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사제들은 자신의 사제적인 양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해온 혐의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

다.

신앙인은 그 신앙 안에서 양심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교회가 어떠한 특권을 주장하거나, 사회의 실정법을 경시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양심법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실정법에 위배되었다면, 그 실정법에 따른 처벌을 작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심법을 따르다 보면, 국사범이나 국가 보안사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교선열들이 모두 국사범으로 처형되었고,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양심법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보안사범으로 처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국가의 소중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곧 국가라거나, 또는 정권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져 공산화 되고 만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국가가 있고 종교가 있다”는 말에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두려워 모든 국민이 정부에서 시키는 말만 반복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공산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 구성구석에 까지 밀고자가 침투되어 있는 불신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 상호간에 믿음을 조성하지 못하고, 오직 물리적 힘과 공포로써만 외적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회는 그 내부로부터 분열되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의 오도된 여론으로 마치 우리 국민이 그러한 사회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진실하게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날 광주사태와 김대중 사건 등, 불행한 시대를 살아온 겨레의 아픈 상처를 들추어냄이 나라와 겨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오직 사랑과 화해의 정신으로, 정의와 관용을 바탕으로, 구시대를 청산할 것을 촉구해온 것입니다.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민족 화합의 염원이 균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당국은 뒤늦게 최기식 신부 개인의 범법행위로 문제를 국한시키려 하고 있으나, 사건의 경위나 성격 그리고 사제의 신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사제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재판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최기식 신부와 모든 피의자들이 올바른 법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 받는가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최기식 신부가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모든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온 교회가 직면해 있는 이 시대의 고통과 위협으로 접혀하게 받아 들이고자 합니다.

또한 모두가 한 형제인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희생된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같은 폭력사태의 악순환이 거듭되

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참으로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느님의 나라를 향하며, 오늘의 현실이 강요하기 쉬운 권력과 금력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스러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 짓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산업사회의 그늘에서 인간의 권리를 빼앗긴 채 자신의 목소리마저 잃어가는 노동자 농민들의 편에 서서, 우리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존엄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끝까지 지향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정부당국이 참된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광주사태 및 학원사태 관련자들의 전면적 사면과 아울러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 인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죽음의 암흑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전능하신 하느님께 우리 모두 일치된 마음으로 정의와 평화를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1982년 4월 15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최근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한 최기식 신부의 구속에 대해 우리 교회에 집중된 당국의 고의적 음해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확인해 준 내외의 모든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학생들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하며 아울러 피해를 본 부산 미국문화원 측에도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상이 하루속히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4월 15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최기식 신부의 구속에 대한 담화문을 지지하면서,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1. 우리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와 최기식 신부가 취한 일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나 사회규범에 비추어서도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최기식 신부에 대한 문책은 우리 교회와 신앙인 전체에 대한 문책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성역으로서의 교회를 주장하거나, 사제의 특권을 강조한 적이 없다. 다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는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 보호를 요청할 때 현상금을 타기 위한 밀고자가 될 수는 없다는 우리들의 신앙을 거듭 확인한다.

2.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당국이 우리 교회를 일방적으로 음해하고 언론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 선동한 사실은 이 시대의 비극이요, 아픔으로 이해하며 한 사태의 징표로서 받아 들인다. 그러나 교회와 국민을 이간, 분열시킨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사건의 확대와 본말의 전도가 그 누구에게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만 “와서 시비를 가림” (이사야 50 : 8)에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3. 문부식군 등의 자수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의 동기 등 그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것이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광주사태에 뿌리를 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는 비극의 확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소와 수렴을 희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광주사태 등 비극의 청산을 위하여 광주사태 관련자와 김대중(토마스)씨 사건 관련자 등의 전면 석방과 사면을 요청해 왔던 것이다.

4. 이번 사건은 진상과 달리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확대되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최기식 신부가 구속된 뒤 부산교구 주교와 사제단에게 밝힌 사건의 진상은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크게 다르며, 원주교구 이창복·정인재 형제에 대하여 행한 고문행위 등에 비추어 이를 확인하는 바이다.

5. 우리는 최기식 신부와 우리 교회의 공식단체 또는 기관인 가톨릭농민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 및 원주교구 교육원 등을 좌경 또는 용공으로 몰아 부친 집중적인 왜곡선전이 그로 인한 교회의 피해라는 측면에서 보다는 정치권력과 언론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땅의 정부와 언론, 그리고 정치인이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잘못된가?

우리는 교회에 대한 비방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의 양식과 인간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바이다.

6. 우리는 광주사태 등 우리의 정치 현실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해하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 행위의 결과만으로 ‘반미’로 평가되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 교회사회 선교협회의 성명 역시 ‘반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간의 진정한 우호를 촉구하는 교회의 희망과 충고로써 이해한다. 그러나 당국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언론을 통해 진의에 반대되게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신·구 교회를 이간시키며, 교회와 국민간의 관계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7. 우리는 문부식군을 비롯한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변호인 선임 등 법률구조 활동을 담당할 것이다. 고문과 조작의 우려가 있음에도 그들을 자수시킨 교회로서의 도의적 책임 때문에 그들이 법 앞에 정당한 재판을 받도

룩 하려는 것이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잃어버린 한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우리는 최기식 신부와 더불어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에 모든 교우와 양식있는 내외 인사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순교로 점철된 200년 교회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사랑과 일치와 단결을 이루어 나가야 할 상황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1982년 4월 26일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



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왜 여론이 나빠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車 종교가 국제적인 연결 속에서 민족 국가의 독자적인 정치 형태를 가져가는데 제약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점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예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기 어려운데도 있지 않느냐.....

또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문제는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 해요. 흔히 우리나라에서 형법권을 발동할 경우, 일단 구속을 해놓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사실 수사권의 남용입니다.崔신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도망을 칠 리도 없고, 또 증거가 나타났는데 인멸시킬 염려도 없고, 주거는 교회내에 있으니까 일정할 테고, 그런데도 구태여 구속해서 처리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다른 정책적인 문제나 장래를 예고하는 정치적인 문제 등등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순수한 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저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基督教精神을 발휘해야

盧 대중 애기들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사건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고, 신부가 관련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건 했으나 이러한 충격을 너무 과장하거나 또 너무 과소평가할 성질도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白신부께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 하시죠.

白 우리에게서 심는 좋은 民族生存이란 대전제가 있는만큼 좀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참을 것은 참고, 고쳐나가는 할 것은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그야말로 폭력없는 평화스러운 사회가 돼

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하겠읍니다. 그런 것은 역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정책을 펴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셔야 될 일이지 아니겠읍니까.

盧 車교수는.....?

車 이번 사건은 과거에 우리가 겪지 못했던 일인만큼 교훈이 될 만한 본보기로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입장에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관용의 정신을 서로 베풀어야 하겠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로가 입장을 한걸음씩 뒤로 당겨서 정부권력의 입장에서 관용의 정신에서 기회를 주고, 동시에 성직자도 기독교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성직자일수록 정부에 대해서 더 관용한 태도를 보여서 법적인 해결에 굳이 저항적으로 나오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盧 이번 사건을 보고 저는 우선 관련되는 여러 사회영역에서 너무 흥분하는 것은 금물이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견해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교회 언론 시민할 것없이 모두 다 남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끝으로 어떤 사회는 지 무슨 일로도 못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태밖에 없게 되는데, 이처럼 마지막을 자초하게 되는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되겠읍니다.

교회로서는 인명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행위는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노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여량을 축적하고 이바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동아」 5월호에서

쥬. 이것은 교회 스스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정치권력자나 사회인들과 꾸준한 대화를 나누서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민중을 교화시키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성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사회불의의 개혁을 위해 나서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번崔신부 사건의 경우는 維新시대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崔신부의 경우가 훨씬 종교적이라고 생각됩니다.

白 한계를 정한다는 것은 힘은 일입니다. 저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예를 가정생활과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家長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한 아무도 그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가정에서 가장이면 가장이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애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것은 사실 신부나 목사밖에 없거든요. 이때 신부나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고하는 것을 가정에 대한 침범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릇을 못한다 해서 다른 남자로 갈아치워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법과 실생활관의 겹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양심문제를 취급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착잡한 國際政治적 배경

盧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는 결국 개인의 사적인 차원에서부터 공적인 차원까지 모두 영혼의 세계로 이해해서 이에 대해서 전부 강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정치에 밀착되어 관여해 왔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에 특수한 조건이 플러스돼야 해요. 뭐냐 하면 교회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가 인간의 영적인 세계를 구원하다 보면 결국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집단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속하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인 집단은 民族社會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 교회는 보편적인 원리는 유지를 하되 현실적인 작동에 있어서는 민족사회에 있어서의 교회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응당 이렇게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치와 연관된 宗教力은 바로 국제정치적인 후광이 되고 있다 하는 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민족사회가 지향하는 모델이 그것과 충돌될 때에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지요. 이렇게 보면 종교적인 세계에서 정치문제에 관여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인으로 봐서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정치적인 후광으로 업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자체로서의 민주주의의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치에 대한 합의를 이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한국만으로 있다면 이번 사건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국내 문제라기 보다는 국제문제였기 때문에 더 커지게 된 일면도 있거든요.

白 옳은 말씀인데,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로 조심을 해야 한다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볼 때에는 우리의 실정을 모르고서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만 정권 대 교회의 문제로 보거든요.

그들은 교회가 인종의 민주적인 차원에서 행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건드리면 외국 여론이 나빠

되면 결국 폭력이 나타나기 마련일 것이고, 사회가 이렇게 처단
게 되지 않도록 어느 사회의 권력자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과 부정의 해답이 구해질 수가 있고, 정상적인 이데올로
기의 통로가 제대로 개진되어 있을 때는 소위 폭력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그렇지 않을 때 큰 불행이 생기고 어떤
화신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원초적인 의
미에서 말씀드린다면 인간적인 의미에서나, 정치적인 의미에서
나, 또 한국이 처한 입장에 있어서나,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었고
또 폭력적으로 해결되어도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盧 현실적인 조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 나름대로 부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白山부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나라에선 제대로 자유민주주의가 돼본 일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
다. 우리나라는 韓末 이래로 폭력이 전면에 나오다시피 해왔던
나라입니다. 극좌도 있었고 극우도 있었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유교적인 정치권이 깨지면서 새로운 명분을 들고 들어오는
세력,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명분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전
근대적이고 의식은 완전히 초현대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
습니다. 행락철만 되면 선거구민들이 올라와 국회의원에게 행락비
내놓으라고 야단이고, 선거를 해보면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선거
를 치른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민주주의를 투표로써 시행한 경우
에 전근대적인 정치행위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오히려 보강되
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겪을 때 국가운명을 말
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인자적인 유혹이 있으리라고 생각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가 권
력을 잡든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
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들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

국의 사회수준을 어떻게 민주주의에 가깝도록 끌어올리느냐가 급
선무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정치를 해도 부딪치는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교회가 할 수 있
는 유기적인 역할은 무엇이고 政教分離의 입장에서 교회는 무엇
을 어디까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白 교회는 사람들에게 세례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세례
를 주느냐를 가르치는 곳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사회에서 인간
을 전개하고 만개시키는 일에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
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보지요.

그러면 어디까지 행동해야 되느냐, 이것을 너무 政教分離의 원
칙만 자꾸 부르짖었으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은닉시켜 주는
문제도 법인을 받아 들여서 잘 선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원칙적
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敎會는 언제나 良心의 문제를 취급해

盧 종교가 정치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바는 어떤 것이 될까요?

車 저는 우리의 정치상황과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개척하는 면에
있어서 종교가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가에 문제의 초점을 두어야지, 종교는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
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현대사회처럼 사회의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상황
에서 서로 남의 영역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
아요.

문제는 어느 선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느냐가 중요하

가 초국가적인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면서도 민족국가와 마찰 없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역이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터치를 하지 않았고, 또 개별적인 국가와 보편적인 교회가 서로 타협하는 관용의 원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 관용이 모자란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 사건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면은 없는가, 그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그 첫째 이유가 정치에 대한 관념의 합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그에 따른 정치관념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편적인 민주주의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에 따라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는 대개 선진서방국가들의 기준을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삼정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의 정치가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되고 현실 또한 기대를 맞춰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실과 의식과의 사이에는 막대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회는 대개 보편적인 가치를 특수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이고 또 우리가 안정된 사회라고 얘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나 일반시민은 우리 사회가 그런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는 너무나 할 것없이 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관념을 통일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보편만 내세우다 보면 국가는 없어도 팬참다는 식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서 그것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쪽을 강조하다 보면 특수가 지나치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보편을 특수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데,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極左나 極右의 폭력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극좌나 극우로 나뉘어서 폭력행위로 나타난다면 둘 다 규탄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교회로서도 용납이 안 될 일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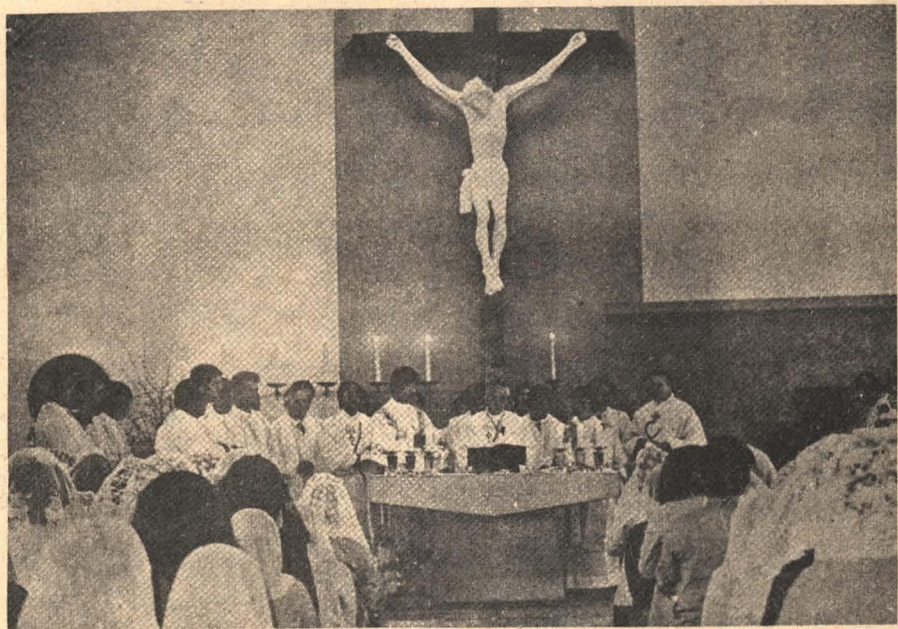
車 저는 신부가 종교적인 신앙에서 범인을 갈추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폭력행위를 용납한 행위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컨대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용서를 받았고 참회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영역에는 받아들였으되 그 행위에 대한 실정법적인 저촉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아닌지를 그 행동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盧 제 얘기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성격을 떠나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폭력적인 정치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것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다는 애집니다.

재고해야 할 政敎分離의 원죄

白 과거를 보더라도 한인들이 데모를 하면 교회안에서도 그들을 잘한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따져서 왜 그런 폭력이 나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한번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모가 생기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돼도 좋으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車 폭력도 폭력의 성질 나름이고 유형나름이겠지요. 정당한 의사의 표현으로 행동력을 보인 것까지 폭력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한 정치적인 요구가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반영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



〈가톨릭 原州교구 원동성당에서 池學淳주교 집전으로 미사가 올려지고 있다〉

서로 상처받지 않고 전체가 화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끝내 법정에 가서 가련다면 법해석을 둘러싼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집중될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해결이다 된 하더라도 역시 상처는 그대로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시대의 방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白 이번 기회에 한가지 간단하게 해명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특히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더군다나 가톨릭 국가도 아닌 상황에서 가톨릭교회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주물물을 일으킨다고 보는 견해가 종종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대체로 잘못 생각하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가 뚜렷한 이념을 가지고서 무엇을 애기하고 행동을 할 적에, 가령 人權이나正義, 혹은 지금 같이 곤란한 사람을 응호해준다는가 할 때 인도적인 측면에서 행동한 것을 물의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 문제에 있어서 세력이 작든 크든, 그리고 기독교 국가이든 아니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교리를 내세워 가지고 큰소리 치는 것은 人工流産法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교리를 너무 내세운다고 하지요. 사실 정의, 인권 등에 관한 것은 가톨릭 교회가 아니더라도 불교나 그밖의 다른 종교에서도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政治에 대한 관념의 합의가 필요하다

盧 이번 사건은 아직도 조사단계에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원칙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가톨릭교회

또 인권의 존중을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권존중의 문제가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의 특수 상황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것이 국민의 의식 속에 파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수 상황이고, 또 이것이 역사적으로 봐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종교계와 국가간의 직접적인 충돌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충돌이지요. 다만 저는 한문의 자유를 한 예로 보더라도 일반 학생이 주장하는 것과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 또 장소가 학교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학문의 자유에는 연구하는 자유권이 아니고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유가 있는데, 이것 역시 대학장단에서 학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과, 일반 학생이나 시민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崔新부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신앙의 명령과 교회법의 원리에 따라 취한 태도로 봐가지고, 그 장소가 일부러 교회 밖으로 나와서 어떤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숨겨주었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스스로 구원을 요청하고 들어온 상황인데다가 그 장소가 가톨릭의 교회법이 적용하는 영역이었거든요. 더구나 그는 일반 신도가 아닌 소위 司祭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입니다. 또 저절로 진행 상황 자체도 적극적으로 침해적인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묵인하는데 그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구체적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과연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성직자들이 그 이외의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崔新부는 방화범이란 것을 알고 자수를 시켰습니다. 일반 형법에도 자수를 시킬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자수를 권고할 의도와 그 결과 자수로 성취되었을 때는 보통 불문

에 부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간의 길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만, 성직자의 입장은 또 달라서 양심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실정법과 교회법의 사이에서 고민도 했다고 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그것을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이용해서崔新부가 자신의 신념을 성취시키기 위해 범죄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을 묵인한데 불과하다면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감안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분명히 반국가적인 사범이고 국가를 위태롭게 할만한 상황을 의식했다면 그 행동은 비난을 받을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행위가 안보적 차원이나 반공적 차원을 떠나서 그 행위가 미치는 실제적인 침해행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판단돼야 합니다. 예컨대 日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반정부적인 내란을 선동하는 장단을 몇 장 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한 판례를 보면 몇 장 부렸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저축이 되나, 그 행위가 재판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는 범죄가 되지 않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崔新부가 우리의 입장으로 봐서 과연 인간의 행위가 더 크게 사회적인 침해행위를 야기할 수 있을만큼, 또 政體내지 國體가 위태로워진, 재판적인 행위로 유발할만한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묵인을 했다면 이것은 신앙인의 입장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正義社會와 民主主義 그리고 和合의 時代를 내걸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지 가서 해결한다고 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법적인 해결 이전에 신앙의 자유라는 관점이라는가 개인의 양심문제도 해결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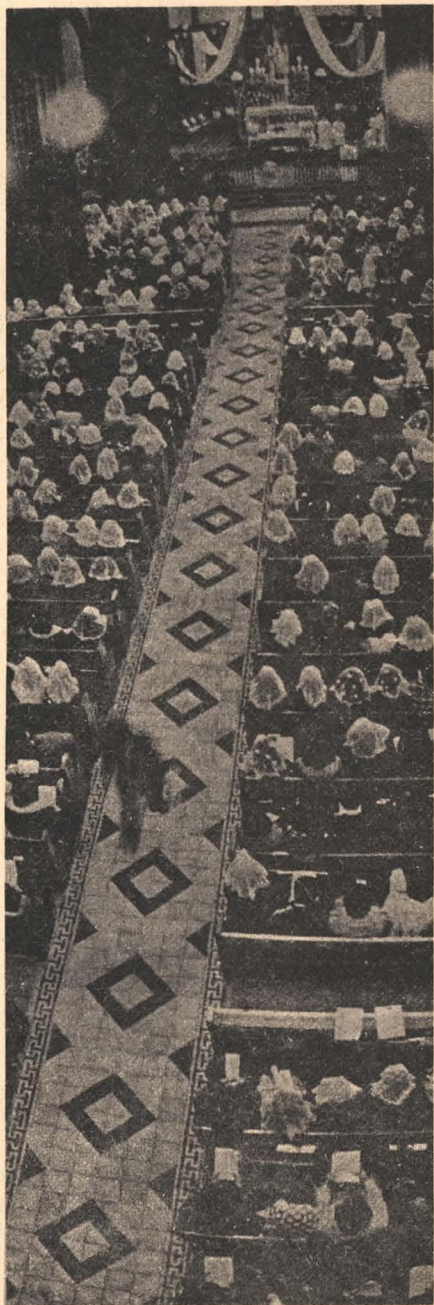
는 논리가 나온다고 할 것 같은데, 같은 논리로 그러면 공산주의도 일종의 초국가적인 신념에 의해서 혹은 양심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경우에 그것도 한국이라고 하는, 아니 한국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에서도 용납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또 만약 그것을 가톨릭 적어도 어떤 특정신부가 은연시켜주고 옹호를 해주었다고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용납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白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 崔基植신부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다만 문제는 방화사건의 범인이 신부방에서 나온 것이 결국 초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 경우 며칠간 범인을 숨겨 주었고 어떤 형식으로 자수를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범인이 오자마자 금방 자수를 시키는 것과, 한 사나이를 있는 후에 자수시킨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나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문제된 것은 金鉉獎이

가 2년 가까이 숨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崔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光州사건으로 숨어 있었는데, 광주사건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은 차치하고, 적어도 광주사건에는 교회가 상당히 깊이 말려들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容共分者로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信仰의 명령과 敎會法의 原理

車 우리가 흔히들 특수상황을 얘기하고 있을 때마다, 기독교적인 정신이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지침만은 헌법 이외에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의 헌법 이념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이고



〈明洞 聖堂의 미사광경〉

되고 안정질서에까지 공헌하게 된 것은 상호의 영역을 설정을 하고 그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를 본 데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합의가 이루어진 커다란 사건은 宗教戰爭이 아니겠읍니까? 이 해결의 방식을 추구하는 동안 세속적인 권력이 종교적인 힘을 완전히 압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잘 안되고 말았죠. 그렇게 안된 그 결과를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기독교를 국가가 컨트롤하지 않더라도 법 이외의 어떤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공동 합리적인 요소라고 할까, 이것이 이미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안 국가는 국가대로 독립적으로 어떤 영역을 확보해서 나갈 수 있었고 또한 편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가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질서를 부여할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힘의 축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아주 평화롭게 공존해 왔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기독교가 사회질서의 기반이 되어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우기 서양의 근대 憲政秩序는 기본적으로 자연법적인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거기서 종교와 국가가 합의를 했던 것인데, 그런 전통없이 그대로 서양법을 갖다 놓은 교회나 국가가 어울림이 따르기 마련이 아닐까.... 만약 우리 사회가 그렇다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歐美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우리의 特殊性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白 우리나라는 對北 관계라는, 그야말로 민족의 존립문제가 가로놓인 특수상황에 처해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그야말로 자연법에 기초를 둔 세계 공통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예컨대 反共이라는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교회와 국가가 원천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마찰이 생길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자기생존과 민족생존을 위해서 공동

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우리의 교회와 국가가 서로 배치되는 사항이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이것이 정권적인 차원에서 발전하다 보면 특수상황이 생겨 가지고 전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반응이냐 하는 문제예요.

또 반응을 하는데 어디에 우선들을 것이냐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가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국가와 교회가 특수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기에서 서투르게 일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金주기정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마치 용용분자들의 아지트처럼 물고간 감이 있어요.

자수시킨 시간을 따지지 말아야

盧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國是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고 있고, 이것이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들도 합의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번 사건을 반정권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가지 여과장치를 통해서 미비점을 정치적으로 새롭게 구비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반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의식수준으로 봐서는 방화사건이 반국가적인 행위로 인식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톨릭교회가, 어느 특정 신부가 이것을 끝내 은닉시켜주고 있었다 하는 것이 시민에게 대단히 큰 충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적인 현실에서 갖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 만약 이 사건을 반국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경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양심에 의한 행위가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적용시키기만은 어렵다고 하



(教會는 인간의 靈의 救援에 목적을 둔다)

다면 교회법이 오히려 실정법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해야 되고 실정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법철학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얹혀 있어서 쉽게 꼬집어 어떻게 해답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白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는 사실 모든 실정법도 실정법 나름이라고 봐요. 자연법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실정법이 올바른 실정법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대원칙이거든요.

복합적으로 연결된 「放火事件」

盧 지금車선생께서는 이번에 등장된 사건은 상호 다른 각도를 갖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먼저 있고 나서 법철학적으로 자연법과 실정법적인 관계를 또 한 단계 넘어서 봐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기를 듣고 느낀 것은 정치학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것이 한국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데에 특수성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문제의 성격은 또 다르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한번 훑어보고, 우리 사회와 그쪽 사회와의 차이가 어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문제가 그쪽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어떠한 성질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서양에서는 민족국가가 발전이 되면서 교회와 국가간에 맹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타협이

「라드부르흐」가 刑法草案을 만든데서 비롯됩니다. 이 초안은 공개는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라드부르흐」는 이 초안에서 確心犯의 경우 그 동기가 명예로운 것이니까 重懲役이나 輕懲 대신 일종의 名譽拘禁刑인 監禁刑을 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는 1927년에 그 초안이 반영이 되었고, 바이마르시대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읍니다. 그러다가 나찌가 등장하면서 確心犯죄에 대해서는 명예롭게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논의가 나왔읍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종교적인 신념에서 나왔을 때는 양심범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관례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정치적 범죄는 누가 명령을 하게 되면 그냥 꼭두각시처럼 따라 다니는데 양심범은 자기로서 일단 양심적인 고뇌에 반영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고 또 어디까지나 利他적인 確心이 서 있으니까 정치적 確心犯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형법이론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소위 요새들 말하는 「의무의 충돌」이라고 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는 의무가 동시에 병행했을 때 하나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면 다른 하나의 의무는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홀히 된 그 의무가 형법 법규에 위반되었다 하여 이것을 과연 위법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낮은 가치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했을 때도 역시 비난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적법행위 기대가 능성이란가, 違法性의 인식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명예로운 처벌을 해야 되느냐 하는 몇가지 문제가 형법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法哲學의인 관점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아카 教會法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법도 자연법의 일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해서 북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 등장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본



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국가에서는 倫理나 信仰문제는 종교가 해야 할 일이고 물질적인 문제나 政治문제는 교회가 개입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으로 분명하지 만 실제로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때가 많지요. 가령 자유와 人權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나 현실적인 문제가 함께 결부여진 인간문 제요. 이것을 자꾸만 따로 재듯이 어떤 선을 그어 놓으면 상충이 생기는 것을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코퍼레이션이겠지요. 그렇다고 서로 양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번 경우같은 데서도 성직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 다 했을 적에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崔신부의 경우는 처벌을 달게 받을 작도가 돼있는 거 예요.

보장되어야 할 信仰의 自由

盧 이번 사건을 法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車 워낙 어려운 문제가 돼서 냉철하게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 습니다만, 저도 白신부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문이 너무 획일적으로 사건을 다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개별성 이나 구체성, 특수상황 등이 무시된 경향도 있고, 또 종교에 관 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放火犯이라는가 국사법에다 초점을 맞춰서 신부의 태도를 일반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인상도 있습니다.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여 러가지 투쟁형태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종교가 존립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것도 국가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종교 가 스스로 지니고 있는 사명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데 바탕을 든만큼 어떤 국가가든 간에 종교에 대해서 관용한 태 도를 지니고 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것은 결국 개인을 얼마만큼 존엄하게 여기고 양심의 자유를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본다면 국 가는 종교가 지니고 있는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종교 또한 인간정신을 승화시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 게 되어야 한다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 이는 불가분의 관계에서 나가는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를 대표한 특정 정부가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이념과 목적에 상반된 의견을 보일 때 양자간에 충돌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 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法哲學적인 관점에서 자연법과 실 정법, 자연법과 敎會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형법의 실현과정에서 생긴만큼 직접적인 문제는 형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신념과 양심에 의해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법범행 위의 결과로 나타나 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형법에서 確信犯으로 다루었습니다. 확신범이 등장한 사회적 배 경은 대개 사회가 안정기에 있을 때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혼란 기나 격동기, 정치범들이 무리하게 무엇을 끌고 가려 할 때 나 타 났어요.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여론이 정상적인 통로로 전 달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어요. 결국 위법한 행위를 통하지 않고 는 자기의 정치적인 의사나 사람들의 도덕적인 또는 종교적인 의 사가 반영될 수 없는 기구 아래에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확신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치적 신념에서 나오는 것과 종교적인 신념에서 행동하는 것과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 니다. 이것을 법률문제로 처음 논의한 것은 1922년에 독일의



〈左로부터 車鏞碩, 盧在鳳, 白敏寬씨〉

성직자라고 해서 국가법을 무시해도 좋은 식으로 문제점을 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성역을 부르짖으면서 聖域權을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 교회가 성역을 내세우고, 성직자라고 해서 국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에良心과法的關係를 애기한 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우선 논의의 초점이 잘못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 가톨릭의 입장에서 말하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인 견해는 이 두實體가 엄연한 사회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최고 목표를 共同善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인간을 보는 인간관, 교회가 인간을 보는 인간관의 차이랄까, 말하자면 관할권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인간을 볼 때 물질적인 측면과 영성적인 측면, 이 두가지로 보고, 국가는 그와는 달리 육체적 물질적인 측면에서 추구하는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입장을 근거로 해서 국가에는自然法에 기초한 헌법도 있고 刑法이라든지 民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기적인 特別措置法도 있죠. 그러나 교회에는 실정법이 없고 교회대로의 교회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교회법은 엄격한 뜻에 있어서 어떤 특수한 국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靈의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다스리는 大原則인 측면을 지니고 있어요. 그 정신은 같은 자연법에서 나왔지만 성격이 다르지요.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이 신자도 될 수 있고 국민도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취합니다. 물질적인 육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사회생활은 교회라 하더라도 국가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공산치하에 있는 교회도 그 법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와 국

■ 參席者(가나다順)

盧 在 鳳

(서울대社會大副敎授・政治學)

白 敏 寬

(神父・가톨릭神學大敎授)

車 鏞 碩

(漢陽大政大敎授・法學)

□ 때 : 1982년 4월 10일
□ 곳 : 「新東亞」會議室

國家와 敎會의 最高 목표는 共同善

盧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釜山 美國文化院 放火 사건으로 파생된 여러가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과격분자의 소행으로 규정되려다가 수사과정에서 가톨릭교회의 신부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단순한 사건 이상의 차원으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은 지금까지 서양이 아닌 동양의 憲政史에서 宗教와 國家의 관계가 처음으로 노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에 부분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과 같이 普遍主義를 지향하

緊急卷頭座談

神父는 누구인가



(盧 在 鳳 氏)



(白 敏 寬 氏)



(車 鏞 碩 氏)

는 교회와 특수성을 지향하는 국가가 서로 상반되는 원칙 때문에 표면적으로 심각하게 양립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차원으로, 즉 신앙의 자유 혹은 신념과 양심의 한계, 국가 혹은 政治權力과 종교의 충돌 내지 조화의 관계를 理論적인 입장에서 검토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번의 사건과 관련하여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白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나 언론기관, 그리고 법률학자들이 많은 견해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개가 교회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신문 타이틀부터 「교회가 聖域이냐」고 내세우고, 성직자도 국민의 한사람인데